

서호인의 좌측담장



그깟 '가을 야구'

정규 시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KBO리그는 야시안게임 휴식기와 들쭉날쭉한 날씨의 영향으로 아직 정규 리그가 진행 중이지만, 태평양 건너 메이저 리그는 포스트시즌 진출 팀이 가려지고, 가을 잔치의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다. 류현진이 속한 LA 다저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나란히 91승 71패를 거뒀다. 두 팀은 '타이 브레이크'라는 이름의 NL 서부지구 1위 팀을 가르는 단판 승부를 치러야 했고, 결국 승자는 다저스였다. 다저스는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이루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류현진 또한 커쇼를 제치고 포스트시즌 첫 경기인 디비전시리즈 1차전 선발로 확정됐다.

메이저리그는 총 30개 팀이 자웅을 겨룬다. 이중 가을 잔치에 초대되는 팀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의 각 지구 우승 팀 여섯과, 우승 팀을 제외한 최다 승리 팀 넷이 그 초대장을 받아, 열 개 팀이 가을 야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팀의 3분의 1이다. 최소한 리그의 우등생이 모이는 장소가 포스트시즌인 셈이다. 성적이 처진 팀은 일찌감치 리탈링을 노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유망주를 긁어모으기 위해 일부러 시즌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가 되곤 한다.

야구는 돌고 돌기 마련이라 지금의 하위권이 언젠가는 상위권에 오르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올해 하위권을 전전한 캔자스시티도 몇 년 전에는 포스트시즌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다. 그럼에도 아찔거나 강팀은 강팀답게 그 탄탄함을 오래 유지한다. 우승을 하든 하지 아니 하든 상관없이 예상 가능한 성적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팀의 내리막을 되돌록 완만한 경사도로 우회하게 만들고, 그사이 유망주를 발굴하여 다시 치고 오를 동력을 만든다. 팀의 성공 기준이 되는 포스트시즌의 판권이 좁은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순환은 조금 더 정합성을 갖는다. 어쩌다 운 좋게 한번 우승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기에, 우선 강팀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2017년 KIA 타이거즈의 우승은 2009년에 이어 '우주의 기운'에 의한 운에 불과했을까?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노력을 운 같은 것으로 폄하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 모든 게 실력이었다면 우승한 다음 시즌인 올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타이거즈는 한때 8위까지 처했

고, 시즌이 끝나 가는 지금 겨우 5위다. 아마저도 확정적은 아니어서, 남은 한 게임에 사력을 다해야 할 판이다. 이 글을 쓰는 날 밤, 타이거즈는 9위 팀에게 연장전에서 졌고, 마찬가지로 5위를 노리는 롯데 자이언츠는 원정 경기에서 연장 승리를 거뒀다. 아직 모른다. 작년 우승 팀이 지금의 순위표에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듯이, 마지막 날의 순위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지하다시피 KBO의 포스트시즌은 10개 팀 중 5개 팀이 진출할 수 있다. 2대 1의 경쟁률을 두고, 팀의 성패가 갈린다. 팀마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절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럭저럭 성공한 팀처럼 보이는 구조. 한국의 가을 야구는 또한 희한한 방식을 전통으로 삼고 있는바, 마치 사다리 놀이처럼 아래에서부터 점차 뒷선에 올라가며 강팀을 만나는 식이다. 5위와 4위, 4위와 3위 그리고 3위와 2위가 경기를 치르는 동안 1위 팀은 폭 쉰다. 그 결과 KBO리그는 최근 수년 동안 정규 리그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을 독식했다.

우승하는 팀이 거의 정해진 가을 야구에 올라가기 위해 다들 애를 쓴다. 타이

거즈의 경우 그중 끔찍머리한 자리를 잡기 위해 더욱 애를 쓴다. 오늘도 애를 쓴다. 투수는 투수대로 다 쓰고 결국 됐다. 이렇게 5위 안에 들어서 그걸 '어따'(어디에다) 쓸까? 물론 6위보다 5위가 낫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딱 그 정도다. 운 좋아 우승한 팀의 결연찍은 체면치레. 팬들이 원하는 것은 폭죽놀이 같은 우승 한 번이 아니다. 언젠데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용광로 같은 팀을 원한다. 늘 안정적인 전력의 아랫목 같은 팀이면 더 좋다. 작년 이맘 때에는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2009년이랑은 다를 줄 알았는데, 맨날 속으면서 또 속았다. 그리고 또 속기 위해 내일 야구를 보겠지. 조금은 짜증 섞인 설렘을 안고 다른 구장 결과까지 쟁겨가면서. 5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절반 안에 겨우 드는 그깟 가을 야구……라고 해 놓고, 그럼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야구 좋아하는 사람의 '찌질함'이려니 싶는데. 이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낄새는 더욱 쌀쌀해져만 가고 있을 뿐이다. (시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군침 흘리는 군산 '산 너머 산' 광주형 일자리

지역 노동계의 이탈로 표류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한국GM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군산시는 최근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정부와 현대차 등을 상대로 자동차 공장 유치에 나섰다. 군산은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지역 내 의지도 높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는 지난 3월에 열린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행사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군산발전협의회, 지역 대학 등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구·구미·군산 등 다른 지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를 설득해 현대차와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적용 도시가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지역 13개 직업계 고교교장단이 그제 완성차 공장의 조속한 설립을 호소하고 나선 데도 사업 무산에 대한 걱정이 갈라 있다. 교장단은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먼 타지로 떠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교장단의 호소처럼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광주가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양보는 필수적이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초미 연봉을 놓고 대립만 할 게 아니라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 수능 만년 최하위 실력 향상 대책 없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그제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표준점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의 경우 광주는 지난해 2위에서 4위로 2단계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6위를 차지했던 전남은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학생들은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 16위(94.8점), 수학(가형) 17위(89.5점), 수학(나형) 16위(96.9점)를 기록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 15위, 수학(가형) 16위, 수학(나형) 1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전남 수능 성적이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전남 지역 수험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론 '농도'(農道)인 전남 지역은 타 지역 시·도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험생 가정의 경제적 형

편과 축소된 학교 규모, 열악한 사교육 환경 등 주어진 조건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최하위 수능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묘안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전남 교육의 '현재'는 '미래' 전남 발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전남 수능 실력 문제는 도교육청은 물론 학교 현장, 지역민 모두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

수능 점수보다 수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진학 지도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미래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 같은 일시적인 임기응변적인 대응책보다 전남 수능 실력을 보다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학교 현장,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며 이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인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가을철에 열이 난다면



조수경 광주기독병원 감염내과 과장

고령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다. 위의 세가지 가을철 열성 질환은 사람으로부터 전파되지는 않고 동물 혹은 곤충을 통해 전파되고 발열을 유발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상세한 전파 양식은 각각 다르다.

쯔쯔가무시병은 쯔쯔가무시균을 가진 털 진드기의 유충이 벼대기로 탈바꿈하는 시기에 야생 쥐에 기생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을 만나 피부에 부착하게 돼 조직액을 흡입하면 털 진드기 유충 내의 균이 인체로 들어가 병을 일으키게 된다. 국내에서는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0월에 정점을 이루다가 11월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며 전북, 경남, 충남 및 전남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털 진드기의 유충은 털 진드기가 알을 낳는 우기에 덩불이 우거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성묘를 가거나 풀베기, 추수를 할 때 많이 노출된다.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앉거나 눕는 것을 피하고, 팔레 등을 풀밭에 널지 말아야 하며, 유행 시기에 관목 숲 등의 지역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숙주인 등줄쥐의 소변, 타액, 대변 등 배설물에 바이러스

가 오염돼 있다가 건조돼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10-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등줄쥐는 전국에 분포하고 논, 밭, 초원, 삼림 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 작업장 인부, 군인에 게서 주로 발생한다. 잠복기는 평균 2-3주이고 임상 양상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증도가 다른 이유는 바이러스의 종류, 독력, 인체의 면역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결막 충혈이나 거드랑이와 연구개의 점상 출혈과 같은 출혈 증상 및 신부전의 주요 소견을 보이고 특징적으로 양측 옆구리 압통을 동반한다. 늦가를 유행 시기에 유행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삼가고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류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물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렙토스피라병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개, 소, 돼지 등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돼 감염된다. 또 감염된 동물의 조직을 다루거나 동물에 물리거나 오염된 음식이나 물의 섭취 또는 호흡기

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된 논밭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고 작업하는 농부와 오염된 습한 토양이나 물과 관련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광부, 오수처리 담당자, 낚시꾼, 군인 등은 감염 위험이 높다.

환자의 대부분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하고 전남, 전북, 경기, 충북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잠복기는 보통 5-14일이고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주증상은 갑작스러운 두통, 근육의 통증과 압통, 오한을 자주 동반하는 발열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한 독감 증상을 보이지만 5-10% 정도에서 중증의 황달, 신부전, 출혈 등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망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렙토스피라병에 대한 백신은 없어 생활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들쥐들의 접근을 막는 관리와 오염된 환경에서 작업시에 긴 바지, 장화, 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열이 난다면 의료 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기고

도시철도 2호선, 시민 행복 위한 가치 있는 투자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도시의 성장은 단순한 면적이 아닌 '동일 생활권'의 확장 여부를 의미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광주시 대부분을 경유하게 된다. 더구나 1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광주 어디든 30분 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호선은 하루에 최대 43만 명을 실어나를 수 있어 광주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추게 된다. 특히 폭우나 폭설 등 그 어떤 도로 사정에도 멈춤 없이 정확성을 보장하며 광주 교통 복지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주목할 바가 크다. 교통은 도심과 도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도시 개발의 축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다. 때문에 문화자산의 손상 없이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성공적인 도심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 승용 차량의 출입은 자제시키면서 많은 인원의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즉, 도시 발전의 미래를 위해 도시철도를 간선, 시내버스 등을 지선으로 하는 체계

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 재원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물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전체 2조 579억 원 중 60%는 국비로 지원받고, 남은 30%는 광주시가 연간 분산 투자, 10%는 지방채를 발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도리어 2호선은 재정을 넘어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도시 발전 요소로 기대되고 있다. 2호선 개통시 1·2호선 연간 730억 원의 작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2호선이 개통되는 2023년에는 2134억 원, 2025년에는 2261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해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크나큰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온다. 이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의 무료 환승 체계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편익을 대폭 증진시키고 있다.

이제 2호선이 들어서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은 3.6%에서 12.1%로 경증 뛰어

오르고 도로 혼잡의 경감,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몇 배의 시민 편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의하면 2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801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099억 원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1만 8191명, 취업 유발 효과는 1만 9227명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호선 건설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발주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이 복지 사회를 향한 그곳이다. 도시철도는 단순한 비용의 셈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아닌, 행복을 모으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시민의 결정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길 바랄 뿐이다.

無等鼓

최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의병 사진'이 올랐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최고회가 전파를 탄 직후였다. 드라마는 1907년 실제 촬영된 의병 사진 한 장을 '오마주'하며 마무리했다.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원본 사진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자 '의병 사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것이다.

누리꾼들은 원본 사진을 찾아낸 뒤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된 모양이다. 국권을 상실해 가던 당시에 누가 의병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었을까? 지난 7월에 기자는 '아무개' 의병 전라도 정도(定道)를 찾아 광주일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207쪽에 실려 있었다.

역사책에는 유성 등 의병장들의 이름만 기록돼 있을 뿐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민초 의병들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의 역사 드라마는 구한말 '잊힌' 의병을 되살려 냈다. 김은숙 작가는 "이 드라마로 '아무개 의병' 등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집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사실 구한말 의병 흔적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광주향교는 1896년 정월, 송사 기우만 선성이니까? 지난 7월에 기자는 '아무개' 의병 전라도 정도(定道)를 찾아 광주일 보에 연재 중인 '전라도 천년 인물 열전' 영광 편에서 대극(大克) 이순식(1875-1908)과 후은(後鰓) 김용구(1861-1918)의 의병장을 소개했다. 이때 고민은 두 의병장의 초상화나 관련 유적지가 남아 있지 않으니 기사 내용에 걸맞은 이미지를 쟁길 수 없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대표적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서 1907년 촬영된 의병 사진을 찾아 대신 사용했다. 원본은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 프래데릭 아서 맥켄지(1869-1931)가 1907년 직접 발로 뛰쳐다 이듬해 출판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6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